

구례군, 오메가3쌀 소비 촉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체결



(주)사조대림·구례농협·구례오메가3영농조합법인 오메가3 쌀 소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구례군은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주)사조대림, 구례농협, 구례오메가3영농조합법인과 오메가3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순호 군수, (주)사조대림 김택준 본부장, 구례농협 노성원 조합장, 구례오메

가3영농조합법인 고상준 이사가 참석했다. 구례군과 세 기관은 오메가3 쌀의 품질 향상과 판로 확대를 위해 ▲생산자재 지원과 유통 활성화 ▲새로운 제품개발 및 판매 ▲원료매입과 가공처리 ▲쌀 생산단지 조성과 쌀의 일료생산 ▲오메가3 쌀 납품 등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올해 구례군 벼 친환경 농산물 인증 계획 면적은 175ha이며, 이 중 25%인 44ha를 오메가3 쌀이 차지하고 있다. 2012년 처음 생산된 오메가3 쌀은 아이쿱생협에 매년 150톤이 납품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특허를 받기도 했다. 김순호 군수는 "아이쿱생협과 (주)사조대림에 오메가3이 쌀이 지속적으로 납품되어 농가 소득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담양 관내 자율형 건물번호판, 주소 정책 공모전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대나무 상징 '진녹색'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 이룬 친환경 표현

담양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 지자체 주소 정책 홍보 우수사례 공모전' 자율형 건물번호판 비주얼 분야에서 관내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6개 분야 총 128건을 접수해 1차 전문가 심사(60%), 2차 국민심사(40%)를 통해 자율형 건물번호판 비주얼 등 분야별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획일적인 표준형 건물번호판과 달리 건축물 소유자가 모양, 크기, 재질 등을 자유롭게 디자인한 번호판을 의미한다.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상에 선정된 관내 자율형 건물번호판(비주얼 분야)은 담양의 대나무를 상징하는 진녹색을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 표현으로써 건물과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 '주소 정보 누리집'(www.juso.go.kr)을 통해 우수사례로 공유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내 많은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며 "군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회 개최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신규·행복시책 178건 발굴

곡성군은 지난 22일(화)부터 4일간 이상철 군수 주재로 각 부서별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발굴된 신규 시책 178건에 대해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 추진방법 등을 논의하며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민선8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발굴과 정부 정책 및 도정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중점 발굴하였다.



주요 시책으로는 □곡성형 청년하우징 타운 조성사업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집적화 □일하잡(JOB)센터 확장 및 동계비 플랫폼 구축 □전남 영농(young農)타운 조성사업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패키지 지원 □경면 제2농공단지 신규조성사업 □삼인동 산림휴양숲 조성사업 □에솔아트형 산림인공정원 조성사업 □삼진강 문태로2 조성사업 등이다. 아울러,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가 돋보이는 시책들이 눈길을 끌었다. 곡성=양혜영기자

사업으로는 매월 60만원씩 최대 84개월을 지원하는 ·출생아 양육지원금 확대사업을 비롯하여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소아과가 없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영유아 아이사랑 교통비 지원사업 등이 발굴되었다.

특히,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군민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59건의 행복 시책도 발굴하였다.

화순군, 화순 전대병원 교차로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실시

화순군이 오는 9월 1일부터 화순 전대병원 교차로 구간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을 개시한다. 단속 구간은 일심리 마을교차로에서 일심교차로까지이며, 40분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공휴일, 점심시간(오전 11시 40분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은 단속이 유예된다. 군은 9월부터 두 달간 주민 홍보 및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계획이며, 적발된 차량은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순 전대병원 교차로는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빈번하였으나, 그동안 계도에 중점을 두고 불법 주정차에 방에 힘써왔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 6월부터 해당 구간에 CCTV를 설치하여 무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 화순=박순철기자

장성군, 가로수 선제적 방제 '총력'

장마 이후 돌발해충 급증... 빠른 방제작업으로 주민 피해 최소화



장성군이 가로수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외래·혐오 병해충에 대한 적극 방제에 나서고 있다. 장마가 끝난 직후 고온다습한 기온이 이어지면서 미국흰불나방 등 돌발해충이 급증하고 있다. 확산 속도도 빨라 선제적인 방제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흰불나방은 주로 가로수, 조경수 등에 피해를 주며 심하면 나무가 죽기도 한다. 발생 초기에 방제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 수시로 관찰·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성군은 앞선 5월부터 지역 내 가로수 3만여 주를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사업을 추진해 왔다. 8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전면적인 방제를 실시했으며, 병해충 발견 시 즉각 추가 방제에 나설 방침이다.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장성군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가로수 방제로 농가 및 민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나주시-나주축협 '축사환경개선 정비사업' 추진

지역민과 상생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지원...31일까지 방문 신청

나주시와 나주축협이 지역민과 상생·공존하는 축산업 구현에 힘을 모은다. 나주시는 나주축협과 축산농가 200호를 대상으로 '축사환경개선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축사 주인의식 함양과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확대를 목표로 추진된다.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울타리', '차폐수막', '조경용 나무 및 다년생 꽃', '분뇨 발효 촉진용 퇴비사 전용 선풍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주소지)을 두고 축산업으로 등록·허가된 축산농가다. 희망 농가는 8월 31일까지 나주축협 지도도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축사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축산환경을 조성해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이번 사업에 농가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관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남	포스코A&C	